

배 포 일	4월 8일 / (총 8매)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 장	정충현	전 화	02-2023-8190
담당자	이진희		02-2023-8193

제 33회 장애인의 날 교육자료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학습지도안

1. 기획의도

- 제 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를 통해, 학생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자각하고,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

2. 활용

- 장애인 주간(4월 20일 ~26일)에 교육 권장
※주의: 교재 내 동영상 시청을 위하여 인터넷 연결 및 플래시 플레이어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되어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학습지도안

□ 주제: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편견 - 1p

◆ 지도의 주안점: 평소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관심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유도

- 길이나 학교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는지?
- 같은 학급(학교)에 장애인 학생이 있는지? 친구를 놀릴 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 장애인이란? -2p

◆ 지도의 주안점: 흔히 알려진 장애유형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 개성 있게 조금씩 다르게 태어난 것과 같이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 장애인: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장애인 분류: 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존재. 바깥으로 드러난 장애 종류만 알고 있지만, 내부기관의 문제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많음
- 우리 모두가 각자 개성 있게 조금씩 다르게 태어난 것과 같이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은 동일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참고: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징>

○ 장애인의 날 소개 - 4p

◆ **지도의 주안점:** 장애인의 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올해(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 예정인 ‘제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문구에 내재되어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평등하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 지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 제고

- 매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올해로 33회
-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에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진행
- 올해 장애인의 날 공식 표어 소개: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
- 2013 장애인의 날 포스터 및 장애인정책 BI소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향

○ 장애인에 대한 상식점점 OX퀴즈 - 5~7p

◆ **지도의 주안점:**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 또는 무지에 대해 OX 퀴즈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많을까요?
→ (X): 장애인의 90%는 후천성장애인
- 장애도 유전이 되나요?
→ (△): 장애가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자녀도 장애인이 되지는 않음
-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나요?
→ (O): 일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들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미국 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베토벤도 장애인이었음.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임. 장애인들도 정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존재. 그러나 사회 내 차별이 존재하여 장애인의 취업률은 36%에 그침

-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을까요?
→ (X):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친구의 의미로 90년대 등장한 신조어. 장애인은 갓난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있어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보통명사로 지칭하는 게 맞음
- 장애인을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나요?
→ (X):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고, 평등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음
- 지적 장애인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 (O):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놀리거나 거부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음
-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이 낮나요?
→ (X): 뇌성마비 장애인은 뇌의 한 부분의 이상으로 몸의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 생활하는 사람. 그 중에는 말을 잘 못하거나 힘들게 겨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면 지능은 우리들과 같음

○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 - 8~9p

◆ **지도의 주안점:** 인포그래픽 형태의 교재를 통해 아이들이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정보를 습득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2011년 기준 252만 명, 전체 인구대비 5.6%가 장애인. 7가구 중 1가구에 장애인이 살고 있음. 장애인 중 90.5%가 후천성 장애.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반 국민은 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고(72.3%), 자신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86.1%)고 응답하는 등 '스스로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나, 남들은 차별한다'고 생각
- 그러나 장애인들의 80.7%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응답
-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경험을 묻는 설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이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49.2%)"이라고 응답

* 2011사회조사통계(통계청), 2011장애인실태조사(복지부)

○ 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 - 10~13p

◆ **지도의 주안점:** 학생들이 평소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에티켓 위주로 교육. 학교 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틱장애, 학습장애 등을 자연스럽게 포함하여 교육

- 다양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한 가지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 바른 언어사용
 - 장애인 / 비장애인이란 표현 사용. 일반인이나 정상인이란 표현은 하지 않아야
 -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 불러주기
- 주요 장애유형별 에티켓 소개
 - 시각장애인
 - ①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 ②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기

- ③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 청각장애인
 - ① 청각장애인도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
 - ②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서 소통하기. 지나치게 천천히 말하거나 입모양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됨
 - 지적장애인
 - ① 한자리에 오래 혼자 우두커니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정신지체아동이 있으면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 ②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 ③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
 - 지체장애인
 - ①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 도움 일이 없는지 먼저 묻기
 - ②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

○ “우리는 친구사이” 인터랙티브 시네마 감상 - 14p

◆ 지도의 주안점

- 초등학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때,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알림
- 중고등학생: 장애인 친구를 돕거나 협력했을 때와 돕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시네마를 통해, 평소 주변의 장애인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초등학생: 학예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스토리로 구성된 “우리는 친구사이” 애니메이션을 함께 감상
- 중고등학생: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는 파스아리 유튜브의 “우리는 친구사이” 인터랙티브 시네마 영상을 함께 감상

○ 장애인의 삶 체험해보기 - 15p

◆ 지도의 주안점: 직접 장애가 주는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체험할 기회 제공(실습)

- 눈을 가리고 그림 그리기 / 소리 따라 걸어가기(시각장애 체험)
- 소리 없는 영상물 보고 내용 파악하기 /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대화하기(청각장애 체험)
- 발가락으로 또는 입으로 그림 그리기(지체장애 체험)
- 거울보고 글 읽기(학습장애 체험)

○ 2013 장애인 인식개선 광고 감상 - 16p

◆ 지도의 주안점: 같은 꿈을 꾸던 동갑내기 발레리나가 사고로 인해 한 사람은 장애인이 되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꿈을 키우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용의 광고 감상

○ [과제] 학교 및 주변의 장애인시설 점검 - 17p

◆ 지도의 주안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알림.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한 비장애인들에게도 편리함을 준다는 사실을 알림

- 학교 또는 등하교길에 있는 시설에 적절한 기울기의 경사로, 난간, 엘리베이터(적정한 높이의 버튼), 점자블록, 문턱 없는 문, 웹 접근성을 갖춘 홈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등이 있는 지 살피기